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상 준¹⁾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산지역의 3개 4년제 대학교에서 508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스트레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진로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과 사회인지이론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

1) 교신저자: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E-mail: sharelove2@naver.com)

I. 서론

인간의 전 생애에 있어 대학생 시기는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직업세계를 다양하게 탐색해 나가는 시기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욕구 및 능력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4). 대학생들은 대 학생들의 전 과정 동안 중요한 진로결정과 마주하게 되는데, 진로결정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Santos, Wang, & Lewis, 2018).

최근 몇 년 전부터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매우 높은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급변하는 직업 환경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정책에도 불구하고(동아일보, 2017. 5. 26) 3.82%로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래 1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은 9.05%로(통계청 2019) 전체 실업률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써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진로는 각 개인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잘 결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감이나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등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인이 자신

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인생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끊임없는 부정적 경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이상준, 2019). 이처럼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 행복감 등 개인생활의 많은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진로결정 수준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말하며(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과정 측면에서, 유전적 재능과 자질, 여러 환경조건과 사건들 그리고 다양한 학습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alsh, 1987).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진로는 대학생들의 주요 고민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보고된 사실로서(류진혜, 정은선, 2002; 임영진, 한영숙, 천주명, 손혜민, 2014), 청년들의 취업이 점차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학생들의 겪는 진로스트레스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스트레스는 타인 및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심신의 부담을 주고 개인의 대처자원을 초과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 또는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기도 한다(이상준, 2019). 진로스트레스란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황지영, 박재황, 2015), 이는 여러 부정적인 진로 경험에서 느끼게 되

는 일반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결과로 알려져 있으며(Creed, Hood, Praskova, & Makransky, 201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권재환,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수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진, 2018; 박선희, 박현주, 2009; 이계영, 2017; 이상준, 2019). 또한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정원철, 2014; 이숙정, 2012; 이유진, 2018).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도 잘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박명신, 한상욱, 2017; 주신옥, 2018). Hackett과 Betz(1981)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자신이 진로와 연관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진로와 연관된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노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Lent & Hackett, 1987).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여러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장애정체성, 진로결정자율성 및 부모의 진로행동, 낙관성, 학업정서, 정서지능 등의 독립변인에 매개적으로 작용하여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가미, 소용준, 박준성, 2018; 김

연경, 박미하, 2019; 이상무, 박관성, 2019; 이순희, 손은령, 2013; 주신옥, 2018; 한희원, 문경숙, 2015; Santos et al, 2018).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은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요인에 대한 관심은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진로결정을 할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변인이 개인·심리적 요인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이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심리적 변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사회·맥락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Swanson과 Woitke(1997), Albert와 Lusso(1999)가 사회·맥락적 변인으로 진로장벽의 변인을 사용하여 진로발달 연구를 하면서 이후 사회적 지지와 진로스트레스 등과 같은 사회·맥락적 변인들로 확장되었다(이상준, 2019; 이상희, 2006; Lent et al, 2003). 이에 진로스트레스라는 사회·맥락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개인의 사회·맥락적 변인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지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사회학습이론의 전통에 입각하여 확대된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다(Bandura, 1986). Bandura(1997)는 대부분의 외부적인 영향은 직접적으로 인간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자기 조절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외부적 영향은 직접적으로 진로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의 효능감, 열망, 정서조절요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이상희, 2006). 다시 말해서, 이는 외부·맥락적인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라는 자기 조절기제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자기효능감이 사회·맥락적 요인을 매개함으로써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인지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상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태도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진로장벽(김종운, 박성실, 2013), 부모지지와 교사지지(Garcia, Restubog, Bordia, Bordia, & Roxas, 2015), 사회적 지지(백정기, 이제경, 2019)와 같은 사회·맥락적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andura(1982)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상희(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김종운과 박성실(2013), Garcia 등(2015), 백정기와 이제경(2019)의 연구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취업환경이 더 열악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진로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만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적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산지역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대구·경산지역의 7개 4년제 대학 중 단순무작위표집으로 3개 대학을 추출하여 각 대학별로 200명씩 총 600명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면접생들이 직접 각 대학의 강의실과 캠퍼스에서 임의 표집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척도 응답에 일관성이 없는 자료와 척도에 결측치가 많은 자료를 제외한 5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508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은 57.9%(294명), 여학생은 42.1%(214명)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20.7% (105명), 2학년 32.9% (167명), 3학년 28.5%(145명), 4학년 17.9 %(91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진로스트레스 척도

진로스트레스는 Choi 등(2011)이 한국 대학생을 위해 개발한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 (KC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모호성 5, 정보부족 5, 고용압박 5, 외부갈등 5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진로모호성 .901, 정보부족 .908, 고용압박 .849, 외부갈등 .821, 전체적으로는 .917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은 경(2000)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목표선택 11, 직업정보 6, 문제해결 3, 미래계획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목표선택요인은 .852, 직업정보 .723 문제해결 .812 미래계획 .823,

전체적으로는 .916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진로결정수준은 Osipow(1986)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을 고향자(1992)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응답자가 경험하는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로 이루어졌다. 이중 2문항은 자유반응형 문항으로 이들 2문항을 제외한 16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90으로 나타났다.

3. 문항꾸러미 제작

진로결정수준은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위변인 없이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잠재변인에 네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문항꾸러미 제작을 위해 우선 잠재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적재량 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적재량 문항과 가장 작은 적재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네 꾸러미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적재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와 Amos 23.0 통계프

로그를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strapping) 검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정규성

표 1은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바탕으로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규성의 분석결과에서는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ney & Distefano, 2013).

표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											
2	.665***	1.00										
3	.515***	.633***	1.00									
4	.486***	.385***	.334***	1.00								
5	-.255***	-.472***	-.428***	-.407***	1.00							
6	-.420***	-.462***	-.350***	.535***	.535***	1.00						
7	-.317***	-.405***	-.408***	.603***	.603***	.707***	1.00					
8	-.249***	-.345***	-.361***	.571***	.571***	.634***	.612***	1.00				
9	-.483***	-.469***	-.368***	.258***	.258***	.364***	.498***	.354***	1.00			
10	-.485***	-.488***	-.419***	.388***	.388***	.418***	.412***	.369***	.505***	1.00		
11	-.605***	-.573***	-.592***	.412***	.412***	.398***	.399***	.407***	.613***	.578***	1.00	
12	-.527***	-.538***	-.493***	.507***	.472***	.527***	.432***	.435***	.582***	.524***	.589***	1.00
M	2.78	2.66	2.42	2.50	2.59	2.61	2.23	2.25	2.66	2.68	2.58	2.60
SD	0.60	0.57	0.63	0.60	0.65	0.57	0.67	0.60	0.47	0.59	0.63	0.40
왜도	-.167	-.254	-.049	-.038	.044	.108	.160	.106	.163	.288	.275	.045
첨도	.042	.355	.022	.126	.154	.343	-.174	.021	.238	-.040	.112	.131

*** $p < .001$. 1=진로모호성, 2=정보부족, 3=고용압박, 4=외부갈등 5=목표선택, 6=직업정보, 7=문제해결, 8=미래계획, 9=진로결정1, 10=진로결정2, 11=진로결정3, 12=진로결정4

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역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며, 구조모델은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배병렬, 2005).

측정모델의 검증

측정모델은 이론변수가 측정변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되어지는가를 규정하며, 측정변수들이 추상적·가설적 개념을 구축함에 있어 측정도구로서의 특성(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김기영·강현철, 2001).

표 2의 측정모델 분석결과, 측정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70 이상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50 이상은 되어야 하며, 만약 .50에 미치지 못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그 항목의 제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서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모두 .5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3과 그림 1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진로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타내

표 2. 측정모델의 경로계수와 다중상관자승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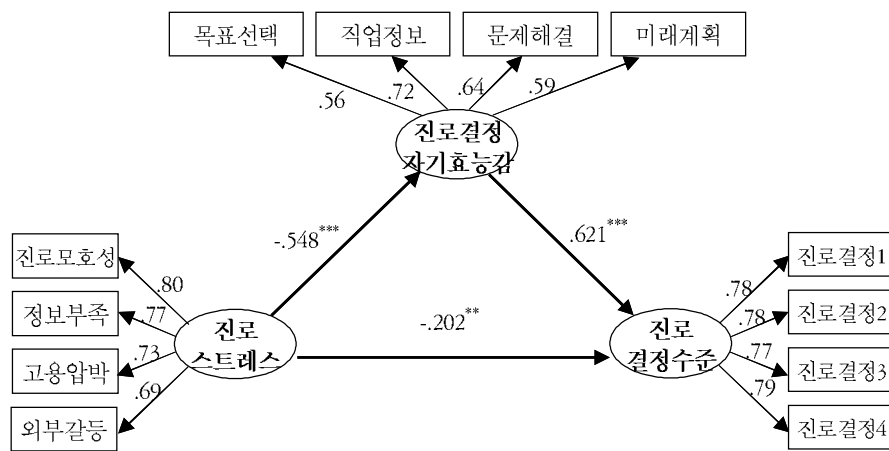
이론변수		측정변수	B	β	t	SMC
독립 변수	진로 스트레스	진로모호성	1.000	.801	-	.726
		정보부족	.921	.764	19.310***	.629
		고용압박	.889	.725	17.153***	.654
		외부갈등	.923	.689	16.852***	.604
매개 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788	.557	9.620***	.310
		직업정보	1.000	.723	-	.522
		문제해결	.966	.638	11.095***	.406
		미래계획	.835	.596	9.127***	.350
종속 변수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수준1	.935	.776	14.581***	.576
		진로결정수준2	.922	.769	15.894***	.547
		진로결정수준3	.951	.780	16.693***	.594
		진로결정수준4	1.000	.785	-	.601

*** $p < .001$

표 3. 이론모델의 경로계수와 다중상관자승값

경로	B	SE	β	CR	SMC
진로스트레스 → 진로결정자기효능감(a)	-.473	.062	-.548	-7.628***	.2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b)	-.584	.102	-.621	5.725***	.653
진로스트레스 → 진로결정수준	-.195	.068	-.202	-2.867**	

** $p < .01$. *** $p < .001$



모형적합도: χ^2 49.943*** (df 45), RMSEA .078, RMR .018, GFI .951, NFI .933, CFI .947

그림 1.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도

표 4.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한 모형의 인과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스트레스 → 진로결정자기효능감(a)	-.548***	-	-.54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b)	.621***	-	.621***
진로스트레스 → 진로결정수준	-.202**	-.340***	-.541***

** $p < .01$. *** $p < .001$

는지 분석한 모형이며,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수행한 결과이다. 부트스트랩 재표본수는 1,000으로 설정하였고(Cheung & Lau, 2008), 신뢰구간 9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먼저, 그림 1에 제시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RMSEA는 .08보다 작은 .078로 나타났고, RMR은 .05보다 작은 .018로 나타났으며, GFI .951, NFI .933, CFI .947로 모두 우수한 수준인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χ^2 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수가 200을 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 최근에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는 추세이다(조현철, 2003).

매개모형의 분석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54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62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경로 추가로 인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진로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541에서 -.202로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경로 투입으로 인해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감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340)이 직접적인 영향(-.202)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모형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65.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구·경산지역에 있는 3개 대학교에서 임의표집방법으로 50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면 이들의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변인은 다르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영향에 미친다는 김태석과 이기학(2012)의 연구, 낙관성에 대한 이순희와 손은령(2013)의 연구, 학업정서에 대한 한희원과 문경숙(2015)의 연구,

자아분화에 대한 김가미 등(2018)의 연구 그리고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Santos 등(201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상희(2006)의 연구에서 사회·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 적게 나타나 사회인지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종운과 박성실(2013)의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지지, 교사지지와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Garcia 등(2015)의 연구,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백정기와 이제경(201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인지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와 지지적인 연구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추후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더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로결정의 대안영역을 확장시키고, 이 과정을 원조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대학생들이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 진로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진로·취업캠프 등을 진행하며 직업정보를 안내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지도하고 때로는 현장의 인사담당자를 초대하여 모의면접 등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갈수록 취업경쟁은 치열해지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학의 진로지도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높아지는 진로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자신의 진로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시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밀착적인 진로상담 등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학업적 측면에서도 진로 관련 교과목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진로 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한계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대구·경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추후 조사지역의 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나의 변수만을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의 탐색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매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같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맥락적인 변인들을 설정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 (201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63-83.
- 김경희, 권재환 (2014).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 수용행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1(4), 43-60.
- 김기영, 강현철 (2001). LISREL(SIMP LIS)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수진 (2018). 고등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청소년-부모 진로일치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경, 박미하 (2019).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낙인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인문사회*21, 10(5), 1235-1250.
- 김종윤, 박성실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김진영, 정원철 (2014).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4), 249-275.
- 김태석,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동이일보 (2017. 5. 26). 1호 업무지시서 추경까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함께해야. p. A1.
- 류진혜, 정은선 (2002). 2003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0, 77-120.
- 박명신, 한상훈 (2017).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참여자의 가족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분석. *인문사회* 21, 8(3), 601-628.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 백정기, 이제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2(2), 79-98.
- 서희정, 윤명희 (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33(3), 105-125.
- 이계영 (2017). *고등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박관성 (201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부모진로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269-297.
- 이상준 (201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2(4), 1-17.
-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 1135.
- 이숙정 (2012). 여대생의 심리적 욕구가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1(1), 103-130.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상담학연구*, 14(4), 2525- 2544.
- 이유진 (2018).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AMOS*. 경기: 법문사.
- 임영진, 한영숙, 천주명, 손혜민 (2014). 201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22, 69-162.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모델: SIMPLIS & AMOS*. 서울: 도서출판 석정.
- 주신옥 (2018).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6(4), 53-69.
- 통계청 (2019). Kosis 100대 지표.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1Body.jsp?menuId=all에서 2020년 1월 10일 인출.
- 한희원, 문경숙 (2015). 대학생의 학업정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4), 75-103.
- 한희원, 문경숙 (2015). 대학생의 학업정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4), 75-103.
- 황지영, 박재황 (201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 73-101.

- Albert, K. A.,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1-436.
- Bandura, A. (1982). The self and mechanism of agency.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p. 3-39). Hillsdale, NJ: Erlbaum.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74-177.
-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 Choi, B. Y., Park, H., Nam, S. K., Lee, J., Cho, D., & Lee, S. M. (2011). The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6), 559-572.
- Creed, P. A., Hood, M., Praskova, A., & Makransky, G. (2016). The Career Distress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4), 732-746.
- Finey, S. J., & Distefano, C. (2013).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R. Hancock & R. O. Mueller(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2nd ed., p. 439-492).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Garcia, P. R., Restubog, S. L., Bordia, P., Bordia, S., & Roxas, R. E. (2015). Career optimism: The roles of contextu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0-18.
- Gati, I., Kraus,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158.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er, B. R.,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58-465.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ntos, A., Wang, W., & Lewis, J. (2018).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7*, 295-30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45.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Walsh, D. J. (1987). Individual variation within the voc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A review and integ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52-65.
- 1 차원고접수 : 2020.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4.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6.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Lee, Sang-June

School of Welfare Social Services, Kyungil University

The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at sorts of mediating rol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lay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Data was collected 508 university students in Daegu-Gyeongsa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Career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influenced career decision level, while indirectly influenced career decision level through medi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roduc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career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led to low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ut nevertheless, the high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led to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areer decision level was directly influenced by career stress, but it was found to be less directly affected b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upported social cognitive theory. It is significant in that respect.

Keywords: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university student